

기독교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 반대!

한국교회는 말씀(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불어 빵을 나누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이다. 모든 시대에는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영역과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경제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가 확대될 지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 수준과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에 더 큰 비전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사회봉사'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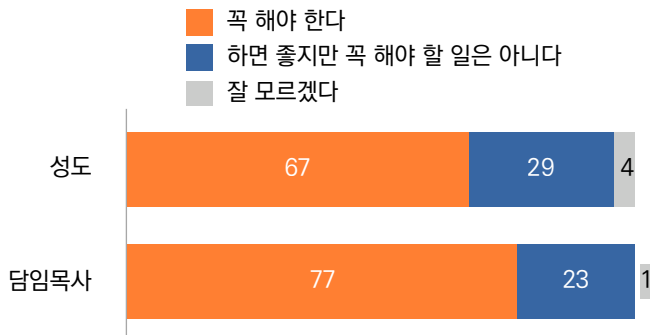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2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3년 11월 21일 ~ 11월 28일	2024년 1월 5일 ~ 1월 15일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사회봉사의 필요성/중요성 인식] 기독교인 10명 중 3명 가량, 교회의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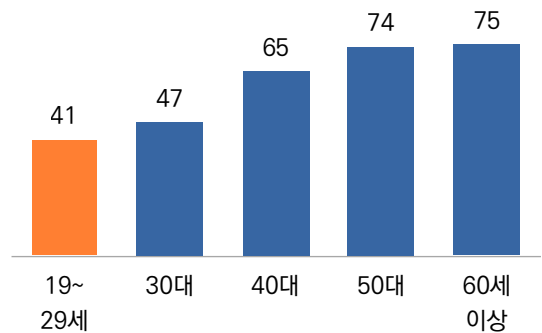
- 사회봉사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일까?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성도 67%, 목회자 77%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의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반대로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사회봉사 불필요성 인식은 29%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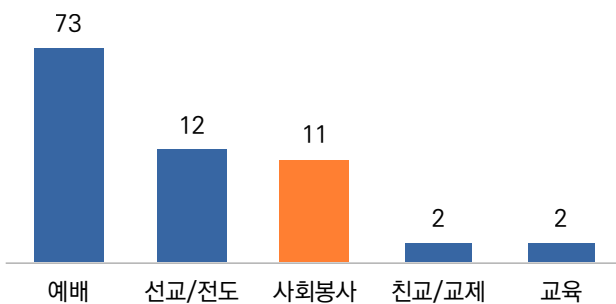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한다'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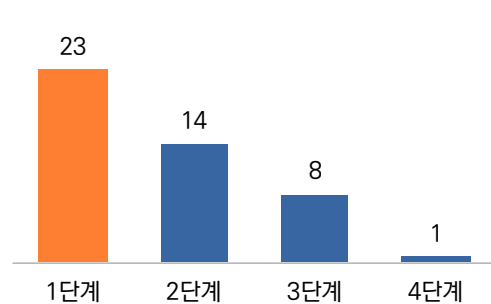
교회의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중요도 11%

- 성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은 무엇일까? 예배(73%)가 압도적이었고, 이어 선교/전도(12%), 사회봉사(11%)가 비슷하게 두 번째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꼽은 비율'은 신앙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았고, 신앙 수준이 가장 깊은 4단계의 경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 (교회 출석 기독교인, %)



[그림] 신앙단계별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선택한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예배실태 조사, 2024.01.(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7.~11.15.)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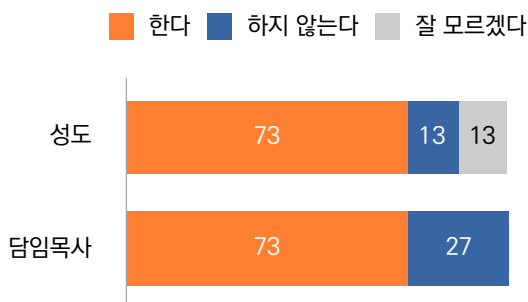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02

[사회봉사 실태 및 인식] 사회봉사 하지 않는 교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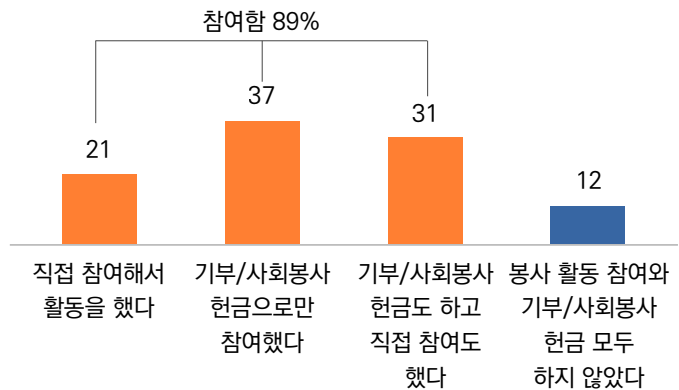
- 출석(시무)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성도와 목회자 10명 중 7명(73%)이 '한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는 27%였다.
- 출석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성도에게 어떤 방식(직접 참여, 기부 등)으로 참여했는지를 물었더니 '기부/사회봉사 현금으로만 참여'가 37%로 가장 많았고, '기부/사회봉사 현금+ 직접 참여'(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 성도(89%)는 직·간접적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의 사회봉사 실시 비율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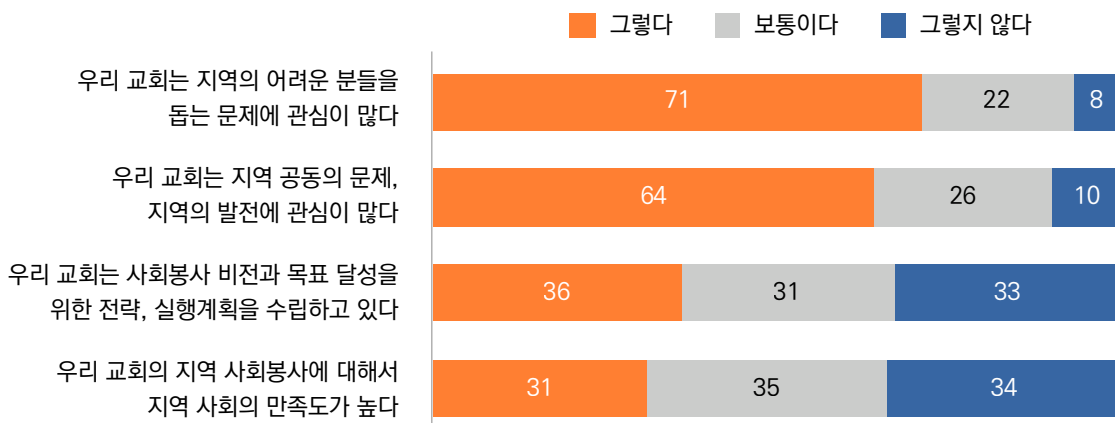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경험
(출석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성도, %)



사회봉사 전략/실행계획 있는 교회 36%에 불과!

- 목회자들은 소속/시무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문제'(71%)와 '지역 공동의 문제, 지역 발전'(64%)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해 단순한 구제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까지 사회봉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사회봉사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실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36%에 그쳐 앞선 관심도 대비 사회봉사 전략/실행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사회 만족도가 높다'의 경우 '그렇다' 31%, '그렇지 않다' 34%로 10명 중 3명의 목회자는 그들의 사회봉사에 대해 지역사회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응답해 주목된다. 따라서 지역 내 적절한 봉사 수요 파악과 대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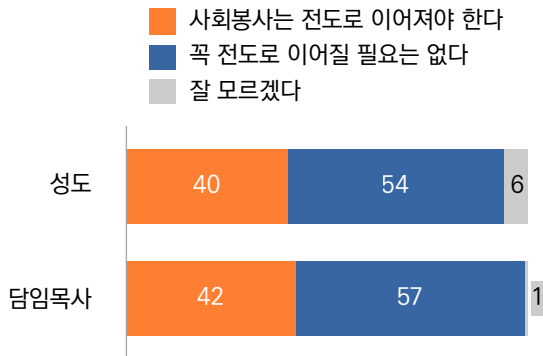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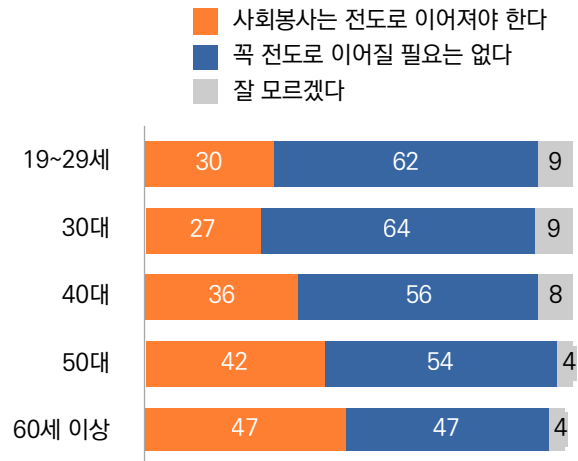
기독교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 반대!

-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에는 성도와 목회자 각각 40%, 42%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과반 이상(성도 54%, 목회자 57%)은 ‘꼭 전도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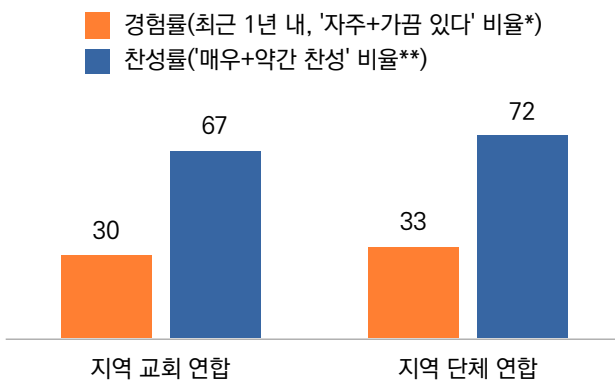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에 대한 의견 (교회 출석 성도, %)



지역 교회/단체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성도 3명 중 2명 이상 ‘찬성’!

- 개인, 각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봉사뿐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속 다른 교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연합활동의 경험률과 찬성여부를 살펴본다.
- 자신의 교회가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의 30%가 ‘있다’고 응답했고, 지역 내 다른 교회와 연합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관한 찬성률도 67%로 경험률 대비 훨씬 높았다. 또, 지역 단체 연합 사회봉사 활동에도 72%가 찬성해 성도 3명 중 2명 이상은 지역 연합 사회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의 지역 내 다른 교회/단체 연합 사회봉사 경험 및 찬성 의견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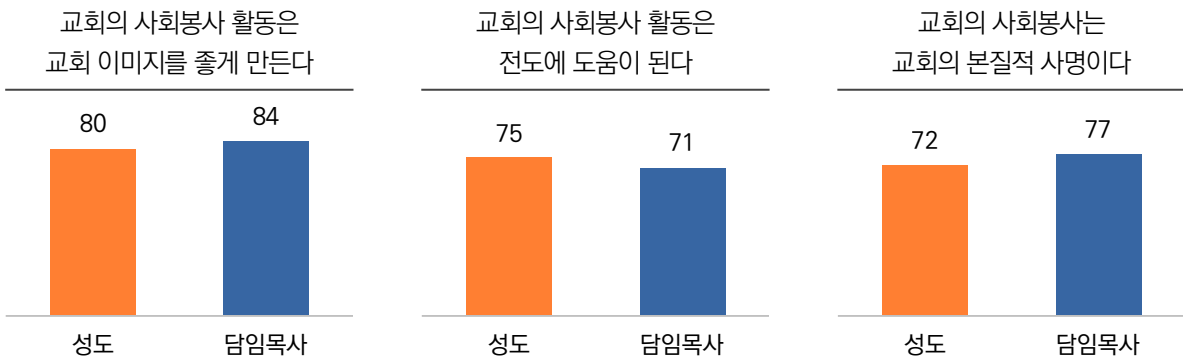
*4점 척도
**5점 척도

03

[사회봉사의 의미와 유익] 목회자/성도 10명 중 7명 이상,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 교회 사역으로서 사회봉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교회 사회봉사 의미에 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도와 목회자의 동의율을 살펴본다.
-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에 성도와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에 도움이 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에 각각 70%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사회봉사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교회 이미지 제고와 전도에 도움이 되고, 본질적인 사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교회의 사회봉사 의미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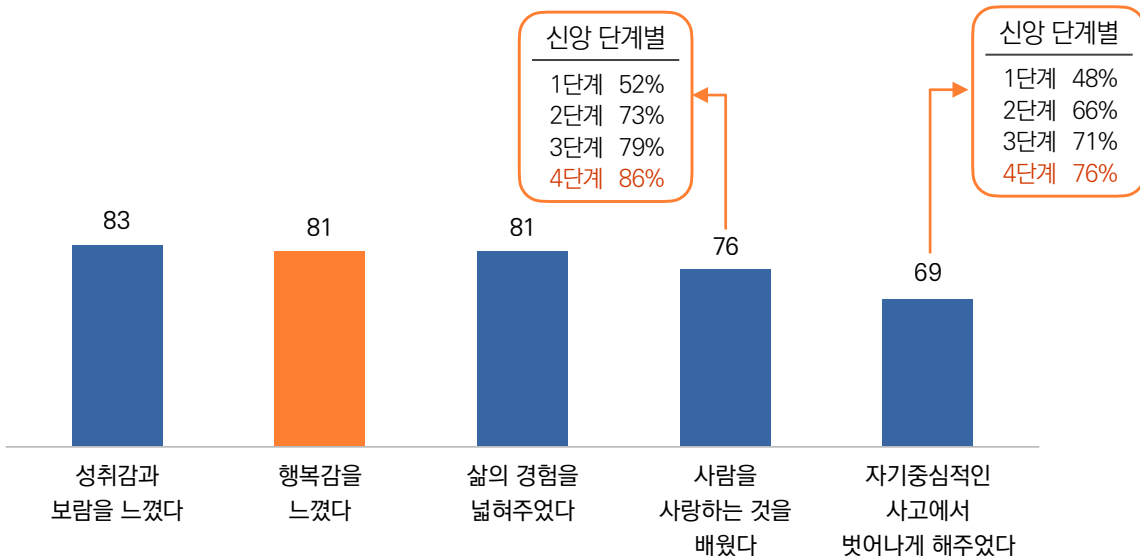


*5점 척도

사회봉사의 유익성, '행복감을 느꼈다' 81%!

- 봉사 경험자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어떤 유익을 경험했는지 항목별 긍정률을 통해 살펴본다.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행복감을 느꼈다', '삶의 경험을 넓혀주었다'에 대한 동의율이 80%대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76%),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69%) 등 이타적 행동과 사고까지 나아가는 것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타성' 측면에 대한 동의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개인적인 사회봉사의 유익 (1년 내 사회봉사 경험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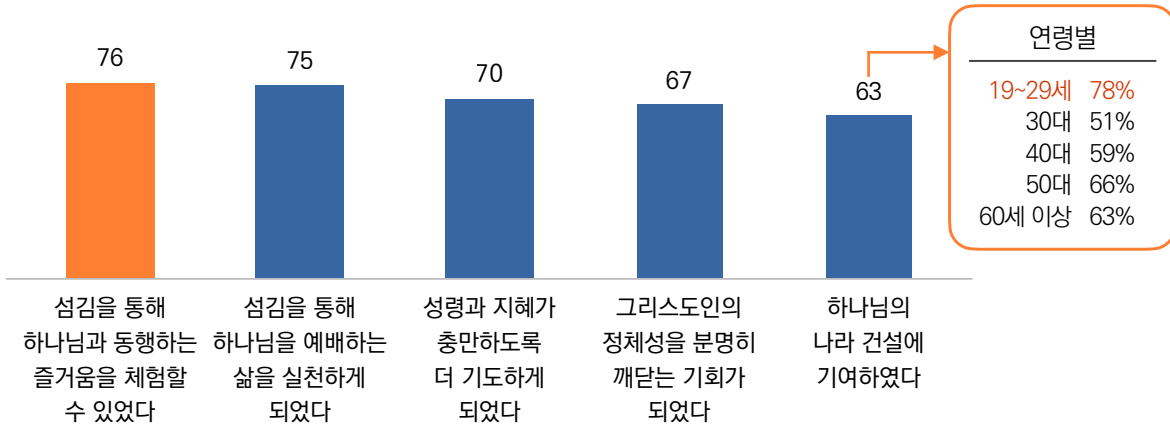


*5점 척도

사회봉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체험’ 76%!

-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유익(봉사 경험자 대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체험’ 76%,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실천’ 75%, ‘더 기도하게 됨’ 70%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한편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함’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특이점은 20대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기여함’을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비전 제시를 통해 20대 크리스천의 사회봉사 독려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봉사의 유익 (1년 내 사회봉사 경험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5점 척도

04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평가]

시급함에 비해 노력 못하는 사회봉사 영역, '정신건강'!

- 사회봉사 영역별로 성도와 목회자가 느끼는 시급함 정도와 교회의 노력을 각각 물어보았다.
- 성도와 목회자 모두 '노인돌봄'을 가장 시급한 봉사영역으로 꼽았고, '아동돌봄'과 '정신건강'이 3순위 안에 들었다. 시급함에 비해 교회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봉사 영역으로는 '정신건강'이 목회자 1위, 성도 2위로 응답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봉사 영역별 교회 사회봉사 활동의 시급성('매우+약간 시급함' 비율*)과 노력 정도('매우+약간 노력함' 비율*) 차이 (상위 5위)

	시급성			노력 정도	
	성도	담임목사		성도	담임목사
1	노인돌봄 71%	노인돌봄 82%	1	노인돌봄 47%	노인돌봄 42%
2	아동돌봄 65%	정신건강 76%	2	아동돌봄 4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7%
3	정신건강 62%	아동돌봄 69%	3	장애인 돌봄 41%	교육 35%
4	기초생활유지 6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68%	4	정신건강 38%	아동돌봄 34%
5	장애인돌봄 61%	장애인돌봄 64%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8%	정신건강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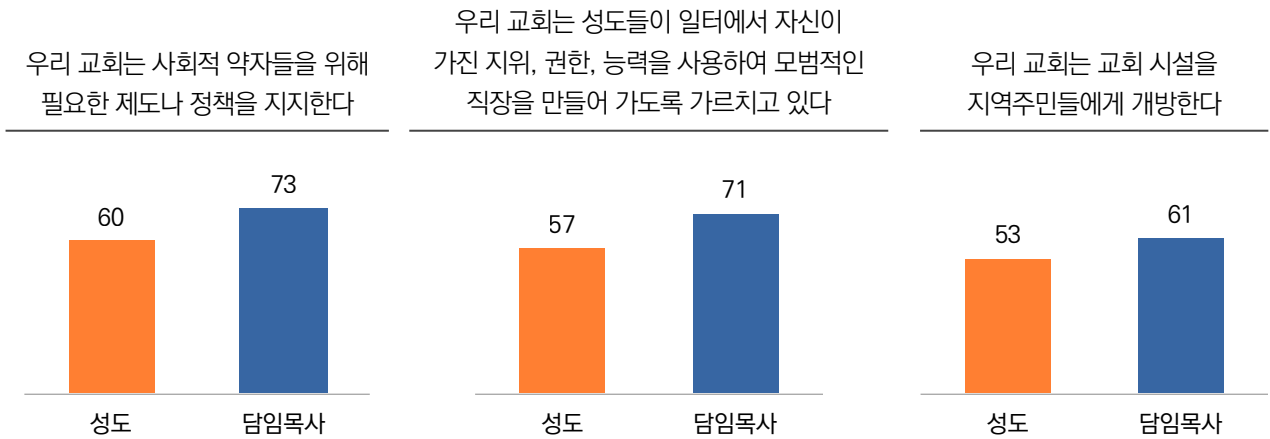
	(시급성-노력) 차이	
	성도	담임목사
1	기초생활유지 25%p	정신건강 44%p
2	정신건강 24%p	장애인돌봄 41%p
3	노인돌봄 24%p	노인돌봄 40%p
4	아동돌봄 21%p	아동돌봄 35%p
5	보호/안전 21%p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1%p

*5점 척도

출석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 목회자보다 성도 평가가 낮아!

- 출석교회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지지한다'에 성도 60%, 목회자 73%가 동의했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 권한, 능력을 사용하여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어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에는 성도 57%, 목회자 71%의 긍정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목회자보다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긍정 평가'가 낮고 두 그룹 간 격차도 컸다.
- 또 '우리 교회는 교회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앞선 두 항목 대비 더 낮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림] 출석교회의 사회적 책임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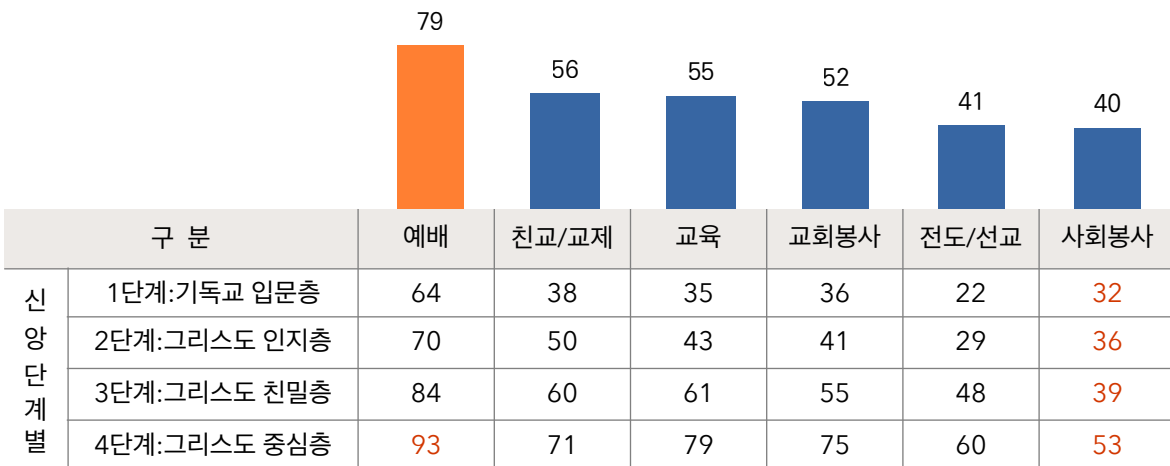


*5점 척도

교회의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만족도 가장 낮아!

- 사역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배, 친교, 교육 등 6개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신앙 수준 4단계 성도에서도 예배(93%) 등 타 사역 대비 사회봉사 만족도(53%, 최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사역별 만족도 (교회 출석 기독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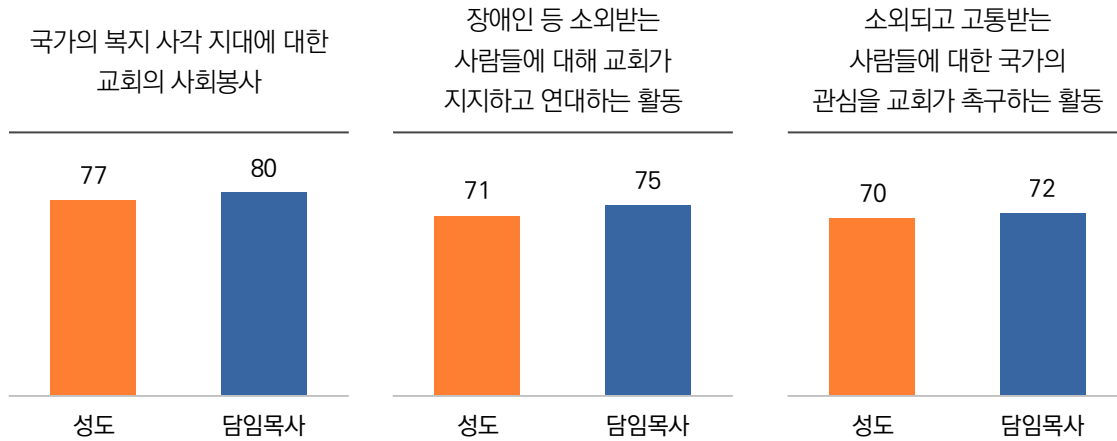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예배실태 조사, 2024.01.(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7.~11.15.)

*5점 척도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범위, 복지 사각지대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국가 역할 촉구까지!

-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활동범위를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다. 성도(77%)와 담임목사(80%) 모두 '국가의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여 공적 지원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 그 외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두 그룹(성도, 담임 목사)에서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범위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사회봉사 하지 않는 한국 교회 27%

- 출석(시무)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10명 중 7명(73%)이 '한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는 27%로 나타났다.

2. 성도/목회자 절반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

-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에는 성도와 목회자 각각 40%, 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과반 이상(성도 54%, 목회자 57%)은 '꼭 전도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 사실상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3. 시급함에 비해 노력 못 미치는 사회봉사 영역, '정신건강'!

- 사회봉사 영역 중 '노인돌봄'이 성도와 목회자가 꼽은 가장 시급한 영역이었고, 시급함에 비해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정신건강'(목회자 1위, 성도 2위)으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도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새물결플러스)
- ▶ [도서]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틀, IVP)

관련 성경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45)

목회 적용점

교회의 본질의 한 축인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사회봉사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란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목회자 77%, 성도 67%로 성도의 필요성 인식이 더 낮았는데 이런 결과는 성도 대상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설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봉사에는 소극적인 채 복음전파에만 힘쓰는 이원론적 사고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 사역이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교회는 단순한 구제분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기여할 수 있고,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약자들과 연대하고,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까지 봉사 범위를 넓게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자.